

# 부산 표구사 이야기

장윤정\*

## | 목 차 |

- I. 머리말
- II. 표구의 역사
- III. 표구사 김창식과 부산계보
- IV. 부산 표구사
- V. 맺음말

## I. 머리말

表具는 서화의 주변을 비단이나 종이로 꾸며 오랫동안 보관하고 감상하게 하는 것으로 책, 족자, 두루마리, 병풍,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다. 표구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사용하게 된 말로 이전에는 粧潢, 褙貼 이라 하였다. 표구를 업으로 하는 곳을 표구사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표구사는 많지 않다.

과거 부산 중구 광복동과 동광동 일대는 문화의 거리였다. 1950년대 광복동일대에는 피란화가들이 몰렸고 광복동 거리의 다방에서는 끊임

\* 국립해양박물관 유물관리팀 연구원 / [yoon1@knmm.or.kr](mailto:yoon1@knmm.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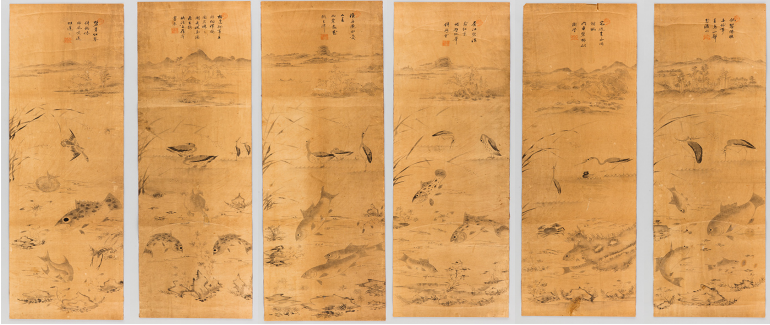
없이 미술전람회가 열렸다. 1970년대에는 중앙동과 동광동에 화랑, 인쇄소, 골동품 가게들이 하나씩 자리 잡기 시작했다.<sup>1)</sup> 이렇게 문화가 꽃피던 시절, 현재의 부산우체국부터 동아대 부민캠퍼스를 잇는 대청로 거리에는 표구사가 약 20개 정도 있었다. 하지만 1997년 IMF로 인한 경기침체, 미술시장의 침체, 전통에 대한 관심 부재 등으로 표구업은 쇠퇴했고, 하나 둘 씩 사라져갔다. 2019년 현재 부산 중구 대청로에 남아있는 표구사는 고려당과 보문당 뿐이다.

서울 인사동에 있는 표구사와 표구 장인들에 관한 이야기는 책이나 구술서 등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부산 표구사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다. 일제강점기 궁중에서 표구일을 했다는 김창식의 부산 계보를 정리해보고, 부산 중구에 남아있는 고려당과 보문당 표구사를 통해 부산 표구사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 II. 표구의 역사

표구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유입된 용어로 이전에는 장황, 배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표구란 서화 주변을 비단이나 종이로 꾸며 책, 족자, 병풍 등의 형태로 만들어 오랫동안 보관하고 감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서화의 바탕인 종이나 비단은 물리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외부의 힘이나 온·습도 등의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낱장의 서화는 쉽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족자, 병풍 등 사용 목적에 맞는 형태로 만들어 오랫동안 보관하고 감상하는 것이다. <그림 1,2>

1) 김한근, 『역사를 품은도시 중구이야기』,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207~212쪽.



<그림 1> 장황 전 날장이었던 어해도



<그림 2> 장황 후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어해도병풍)

표구기술은 4세기경 고구려시대 불경을 裱帖하면서 전해 내려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고려시대에 불교와 귀족문화의 발전으로 탕화, 진영, 영정, 장식용 서화작품 등이 제작되면서 표구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문인화가와 화원들에 의해 회화

가 발달하면서 표구의 수요가 늘었을 것이다.<sup>2)</sup>

조선시대에는 궁중에서 활동한 배첩장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15세기에 집필된 법전인 『經國大典』에 따르면 楷貼匠은 本曹에 2명, 尙衣院에 4명, 圖書署에 2명이 배치되었다고 한다.<sup>3)</sup> 그리고 『嘉禮都監儀軌』를 포함한 여러 의궤에는 표구에 참여한 장인들을 楷貼匠, 屏風匠, 繪粧匠 등으로 세분화해서 명시했으며, 참여한 장인들의 이름, 작업에 필요한 도구와 재료도 기록되어 있다.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을 시작으로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조선 전통문화는 서구 문화와 갈등을 겪는다. 1910년 한일합병 조약 이후로 우리나라 전통 문화는 점차 소실되었다. 이는 표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인들이 조선으로 대거 이주했고, 그들의 생활에 맞게 표구를 하기 위해 일본인 표구사들도 들어오게 되었다. 장황, 배첩이 아닌 표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sup>4)</sup>, 도구와 공정 과정의 명칭도 일본화 되었다. 장황의 형태도 일본식과 혼합되거나 변형되었다. 해방 후 일본인이 경영하던 표구사는 조선인에게 넘어왔지만 그 잔재는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다.

### Ⅲ. 표구사 김창식과 부산계보

왕실에서 일을 하다 표구사를 운영했다고 알려진 사람은 韓應燁과 金昌植이 있다. 그 중 김창식은 부산에 내려와 표구일을 했다고 한다. 김창식은 1904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연유는 알 수 없으나 일년 반동안

2) 박원순, 『우리가 잃어버린 고급 전통문화』, 『國史館論叢』 75, 1997, 2~4쪽.

3) 박원순, 위의 논문, 4쪽.

4) 김산호, 『한국 근현대 표구기술의 변천 과정』,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5~6쪽.

감옥에 수감되어 그곳에서 표구기술을 배웠다. 감옥에서 나온 후 이왕 가박물관에서 그림을 관리하다 표구일을 하였으며, 영정도 수리하였다 고 한다.<sup>5)</sup>

1936년 李王職에서 기록한 『璿源殿影幀摹寫謄錄』에 1935년에 선원 전의 세조대왕과 원종의 어진을 모사하는 작업에 表具師金昌植이 참여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禮式課長兼主殿課長事務官 李兼聖  
 主殿課 囑託子爵李完鎔  
 會計課用度主任 屬天井章三  
 主殿課主任 屬李應勳 囑託洪奎植 李大容 任祿宰 直殿李應駿 李載榮  
 會計課 雇崔東元  
 主殿課 畫師金殷鎬 助手張鳳雲 表具師金昌植 仕員朴熙鈺 金顯鍾 池錫俊 南鳳祐 金熙元 姜鳳書 殿丁李奉順 南相玉 金致浩 張今眞 朴春福 徐相德 朴昌成  
 庭監十二人” 『璿源殿影幀摹寫謄錄』 『座目』, 1936년

1930년대 초 김창식은 서울에 ‘조선미술표구사’를 세웠고, 6.25때 부산으로 피난 와서도 표구일을 하였다. 간판 없이 부산 부평동에서 개업을 하였으며, 토성동, 동광동, 대청동으로 옮겨가면서 ‘대청사’라는 상호를 붙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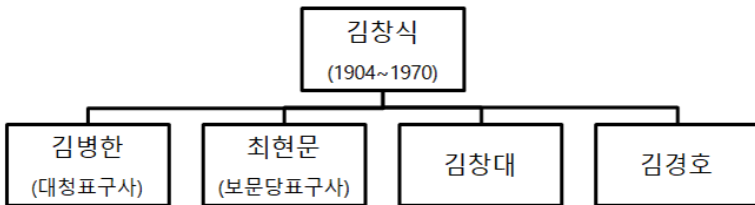
곡부 김창식 선생이라고 있어, 저 이왕가미술관에 있었었거든, 어진도 하고 광화문에서 표구사도 하고, 일제시대에 표구사를 했겠지, 그 분이 6.25때 부산에 피난을 왔어, 이당 소장 그런 분들이 부산에 내

5) 백경와, 『표구업에 기반을 둔 지류문화재 수리장인의 출현 과정』,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9~10쪽.

려오기도 하고, 그분들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일을 시작한 거지<sup>6)</sup>

김창식의 계보는 서울과 부산으로 나뉘지는데, 부산에서 김창식에게 일을 배운 사람은 김병한, 최현문, 김창대, 김경호가 있다. 김병한은 1939년 일본에서 태어났으며, 부산에 공부하러 왔다가 생활이 어려워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1965년에 표구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1960년대 후반 대청동에서 신창동으로 옮기며 김창식에게 ‘대청사’를 물려받았고, 신창동에서 남포동으로 이전하면서 ‘대청표구사’라 이름을 바꿨다고 한다.<sup>7)</sup> 현재 남포동 자리에 대청표구사 간판은 남아있지만 운영은 하고 있지 않다.

최현문은 김창식의 제자로서 부산에서 유일하게 현재까지 표구 일을 하고 있다. 1964년에 표구일을 시작하였고, 부산 중구 대청로에서 ‘보문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서나 탕화 등을 보존처리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다. 김창대와 김경호는 다른 일을 하기 위해 표구일을 그만두었다고만 알려져 있다.



<표 1> 김창식의 부산계보

6) 제보자: 최현문(보문당표구사 대표).

7) 백경와, 앞의 논문, 2005, 11~15쪽.

## IV. 부산 표구사

### 1. 송월당

1900년대 초 기록에 남아있는 부산 소재 표구사는 ‘松月堂’이 있다. 1913년에 간행된 『朝鮮在住內地人 實業家人名辭典 第1編』에 따르면, 일본인 堺常古는 1905년 조선으로 건너와 부산에 있는 표구사 송월당에 들어가고 1908년 2월 京城 壽町에 가서 부산의 松月堂이름을 그대로 계승해 개업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8)</sup> 송월당의 주인이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부산 표구사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송월당은 1905년에 부산에 표구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외에 1930년경 서울에 일본인이 운영하는 표구사가 15곳,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이 3곳, 대구 부산 광주 등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표구사가 있었다고만 전해지고 있다.<sup>9)</sup>

### 2. 중구 대청로 표구사

현재 부산우체국(중앙역 7번 출구)부터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까지 길을 대청로라 한다. 이는 중구 중앙동과 서구 부민동을 연결하는 큰 도로로 일제강점기부터 문화의 거리였다. 표구사, 인쇄소, 고미술상이 성업했고 1970년~1980년대에 이 거리에만 표구사가 약 20개정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는 ‘고려당표구사’와 ‘보문당표구사’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8) 朝鮮實業新聞社, 『朝鮮在住內地人 實業家人名辭典 第1編』, 朝鮮實業新聞社, 1913, 219쪽.

9) 고수익, 『표구미학개론』, 고륜, 2007, 48~49쪽.

일제강점기부터 이 거리가 인쇄거리 표구사거리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인쇄도 문화거리<sup>10)</sup>



<그림 3> 「부산시가지도」 대청로 부분<sup>11)</sup>, 1960년대 후반, 부경근대사료연구소

1) 고려당표구사<sup>12)</sup>

高麗堂表具師는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126번길 4(대청동1가 39-1)에 위치해 있다. 대표 박용곤은 3대째 표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일제강점기 그의 외조부 신달호는 일본인이 경영하던 ‘남향당표구사’에서 일을 하였다. 당시 남향당표구사는 현 부산진역 동부경찰서 자리에 있었다. 신달호는 해방 직전에 일본인에게 표구사를 물려받아 국제시장으로 이전하였다. 하지만 1953년 국제시장에 대화재가 일어나 보수동 책방

10) 계보자: 박용곤(고려당표구사 대표).

11)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부산근대지도모음집』, 효성정판인쇄, 2012”에서 「부산시가지도」를 부분 발췌 후 현재의 대청로를 노란색으로 표시함.

12) 고려당표구사 이야기는 대표 박용곤의 이야기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을 함께 실었다.



골목 쪽에서 ‘중앙표구사’로 이름을 바꿔 재기하였다. 1958년 ‘문화표구사’로 개칭하고 외삼촌 신형범이 표구사를 이어받는다. 박용곤은 평소 외삼촌이 일하는 모습을 관심 있게 보았고 1957년 표구 일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1971년 외삼촌으로부터 독립하여 ‘고려당표구사’를 개업하고, 1985년 지금의 점포로 이전하였다.<sup>13)</sup>

옛날에 할아버지는 어디서 했냐면 동부산 경찰서 있죠, 고자리가 제재소도 있고 표구사도 있고 그랬어요. 그때 경찰서가 없었고 부산 진역이죠 지금은 사용 안하지만은. 부산진 역 앞에 제재소, 표구사도 있었는데 해방 직전에 국제시장으로 이사를 왔어. 거기서 국제시장 대화재를 만나가 또 변화가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외삼촌이 인수를 받았지.

표구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처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을 호되게 배우며, 기술을 배우고 숙달시키는데 적어도 10년이 걸린다고 한다.

옛날에는 일본사람들이 원래 기술자는 제일 처음 배울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을 호되게 가리킵니다. 거쳐 가는 과정이 한 10년 걸려요, 그 후에 제대로 표구 기술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지. 지금은 몇 달 해가지고 하거든요,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하거든, 흉내만 내는 거라, 그러니까 발전이 힘들지.

오랜 시간 일을 하다 보면 서화를 보는 해안도 갖게 된다. 여러 작가

13) 나이스 중구, 주경업의 중구이야기 39 골목이야기 5-중구 문화예술인의 거리(중)  
www.bsjunggu.go.kr/news/board/view.junggu?boardId=BBS\_0000096&menuCd=D  
OM\_000001519000000000&dataSid=151888 (검색일: 2019. 5. 23.).

의 작품을 볼 수 있고, 누구보다도 작품을 가까이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을 하면서 작품이 변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마지막으로 옷을 입혀 완성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한다.

작품을 내 손에서 물을 축이고 말리고 배접하고 말리고 하는 과정에서 작품을 충분히 이해하는기라, 그때 그림 변하는게 보이거든. 완성하면 기분 좋아. 작품 좋다 이렇게 평가 할 수 있는 거지.

1970년부터 1990년까지 우리나라는 경제의 전성기였다. 미술 전시회가 많이 열렸으며, 개인 소장자의 미술품 거래가 많았고, 표구 일도 성업이었다. 하지만 점점 전통문화와 동양학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고 이는 표구의 수요를 떨어뜨렸다. 소비가 적어지니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다. 대청로에만 20여개 있던 표구사가 다 없어지고 두 곳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태로는 표구의 발전은 힘들다고 한다.

그가 바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한문 교육과 동양학에 대한 관심이다. 한문을 모르니 동양학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이는 동양화, 서예, 표구 문화의 발전을 불러 오지 못한다. 수요가 없으니 미래도 보이지 않고, 이 일을 후대에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줄 수 없다고 한다.

바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학교 교육, 첫째, 요즘 학생들 한문을 모르니까 동양학에 대해 몰라. 한문을 읽으로써 철학, 시, 그림이 나오거든. 학교에서 한문을 안가리키니까 학생들이 그림에 대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더더욱 관심이 없어지는 기라, 모르니까 그냥 먹색으로 봐버리고 그림도 글도 아닌 거라. 그러니까 우리 동양화 서예가 우리 표구가 안 된다는 거지. 젊은 사람들이 소장하고 감상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여기 관심이 없으니까 미래가 없잖아요. 그래가 내 2세한테 넘겨주고 내가 뭘 3대째 4대째 넘겨주기가 싫은 거라. 밥 먹

고 살기 힘들니까, 소비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죠, 우리 애도 만드는 애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밥 먹고 못사니까 맡길 수가 없어요.

## 2) 보문당표구사<sup>14)</sup>

대표 최현문이 운영하는 寶文堂表具師는 현재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32(동광동 3가 2-1)에 있다. 최현문의 스승은 곡부 김창식으로 일제강점기에 이왕가박물관에서 표구 장인으로 일했으며, 6.25때 부산으로 피난을 와서 표구일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최현문은 1964년 동광시장에 심부름을 갔다가 표구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곡부 김창식 선생이라고 있어, 저 이왕가 미술관에 있었었거든,, (생략),, 처음에 토성동에서 하다가 내가 할 때는 부산 테파트 짓기 전에 시장이었는데, 거기에 와서 내가 심부름을 왔다가 거기 오게 됐지.

최현문은 위에 선배들이 없었기 때문에 힘든 줄도 모르고 일을 배웠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표구를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도제식 교육이기 때문에 선생님 또는 선배 밑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어깨 너머 배웠고, 배우는 기간은 길 수 밖에 없었다.

나는 여기서 힘든 거는 모르고 했는데, 서울 광화문에 ‘문화표구사’라고 이 선생(김창식) 제자가 하는 표구사가 있어, 도와달라고 해서 가서 일을 했지, 그랬더니 거기 풀 쭈는 애들이 한 3년을 쭈더라고 진짜로, 계속 심부름만 하고, 생각보다 되게 어렵게 배웠더라고, 내 혼자밖에 없었으니깐 빨리 배울 수 있었지 많이 있었으면 그렇게 못 하지.

14) 보문당표구사 이야기는 대표 최현문의 이야기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을 함께 실었다.

최현문은 서울에 있는 동안 부산에 화랑을 만들고 싶어 하는 김재범<sup>15)</sup>을 만났고, 부산으로 함께 내려왔다. 그리하여 1972년에 부산 테파트 부지인 중구 동광동 1가 1번지에 있던 동광 공설 시장에서 표구 일을 시작하였다. 화랑 일을 도우며 좋은 그림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고 한다. 1976년에 현재의 상호인 ‘보문당표구사’로 이름을 정하였고, 1980년 동광동 3가 2-1번지로 이전하였다.<sup>16)</sup>

1970년, 1980년에는 대청로 거리에 많은 표구사가 있었다. 대청로 거리에만 표구사가 약 20개정도 있었으며, 한때 진주표구사, 부산표구사, 문화표구사, 보수동쪽 무천당표구사 등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표구의 수요가 증가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경제의 성장과 미술 시장의 확대다. 1970년에서 1990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였으며 미술시장이 확대되고 화랑이 발전한 시기였다.<sup>17)</sup> 이때 최현문의 주요 고객층은 개인 소장가였으며, 전시회가 있으면 밤을 새는 일은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두 번째는 주거 건축의 변화이다. 1967년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 고층 아파트 건축을 촉진시켜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었고, 이 이후로도 아파트 건축은 계속 되었다.<sup>18)</sup> 부산 또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아파트 건축을 시작하였다. 아파트의 증가는 아파트 벽면을 장식할만한 액자 수요의 급증을 갖고 왔다.

이 거리(대청로)에 진주표구사가 있었고, 부산표구사, 문화표구사가 있었고, 그리고 저 보수동 가면 무천당 표구사가 있었고, 그렇게

15) 중앙화랑 설립자. 중앙화랑은 1973년 중구 중앙동에 설립되었다.

16) 『보문당 표구사』(부산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 검색일: 2019. 5. 23.).

17) 강혜영, 「부산지역 미술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2008, 23~26쪽.

18) 『아파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4431> 검색일: 2019. 5. 23.).

있었어. 70년 말 80년대 들어오면서 아파트들 많이 짓고 그림도 하나씩 걸게 되고 수요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표구사들이 엄청 많이 생겼잖아, 그때 다 생긴 거야.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 이렇게 여기 한 20개 됐어, 거의 막 표구사 골목이고 그랬어. 그래서 이 골목에 표구사 골목, 화랑골목, 또 골동품가게 뭐 이런 것들도 생기고.

한때 부산 대청로 거리에 표구사가 성업했지만 2000년에 들어서 표구사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1997년 IMF를 맞아 한국 경제가 어려웠으며 미술시장도 불황이었다. 당시 부산에 있는 많은 화랑들이 폐관했다.<sup>19)</sup> 또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표구일도 줄어들게 되었다.

그전에 서실 하나 만들어놓으면 초등학생도 많았어, 요즘에는 한 사람도 없지, 그런 데서도 우리 일거리가 많이 나오잖아, (지금은) 거기서도 하나도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없어질 수밖에 없어. 다 컴퓨터나 글로 가지 하나도 없잖아.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하는 사람이 적게 되어 있어. 박물관 같은데서 보존처리라도 하니까, 그리고 지정문화재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하지 평소에 하고 있던(표구사들은) 많이 없어졌잖아.

최현문은 박물관 등에서 유물 보존처리일도 하면서 이 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술의 전수라고 한다.

이걸 잘 전수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무형문화재 신청은 했는데, 이게 되면 전수자 해가지고 할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19) 강혜영, 앞의 논문, 2008, 33~34쪽.

할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빨리 됐으면 좋겠네. 그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래야 내가 나이 더 들기 전에 빨리 전수해주고 가지. 70년 고 보니깐 나이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



<그림 4> 세월에 닳은 작업도구(왼쪽)

시기	근현대 표구	고려당표구사	보문당표구사
1905	*부산 표구사 <송월당>  <전통표구 소실 및 변형> -일본인 표구사 유입 -전통표구 잃거나 변형		
193?			스승 김창식 서울에 <조선미술표구사>개업
1942		박용근 출생	
해방직전		1代 신달호<남향당표구사>	
1947			최현문 출생
195?			김창식 부산 피난
1953		개칭 : <중앙표구사>	
1957		박용근 표구 입문	
1958		2代 신형범 개칭 : <문화표구사>	
1964			최현문 표구 입문
1971	<표구사 증가> -경제성장	3代 박용근 독립 개업 : <고려당표구사>	
1972	-미술시장의 확대		개업: 중구동광동1가1번지
1976	-건축의 변화 * 대청로 표구사: 약 20개		<보문당>이라 상호 지음
1980			이전: 중구동광동3가21번지
1985		이전 : 중구 대청동1가	
1997	<표구사 감소> -IMF, 경제악화		
2000	-미술시장 불황 -동양학 관심 부재 * 대청로 표구사 : 2개		
2019		<고려당> 운영중	<보문당> 운영중

<표 2> 근현대 표구와 대청로 표구사 연혁

## V. 맺음말

襟貼은 중국 한 대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表裝技術은 중국 한국 일본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 정착하였다. 표장기술이 한국에 온 것은 4세기경으로 고려, 조선시대를 지나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전통 표구는 단절되거나 변형되었지만 이 또한 역사이며, 우리의 전통 장황을 연구하려는 노력도 보이고 있다.

1970년에서 1990년대까지 부산 중구 대청로 주변에만 약 20개 정도의 표구사가 있을 만큼 표구업은 성행했다. 하지만 IMF 이후 미술시장의 침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부재 등으로 많은 표구사들이 사라졌고, 고려당과 보문당 두 표구사만 남아있다. 선대로부터 배운 기술을 물려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리고 수요가 없다보니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주기 미안한게 표구계의 현실이라고 한다. 이 글을 통해 우리 표구(장황, 배첩)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생기길 바라며, 이러한 전통 기술을 물려줄 방법이 마련되어 후대에 온전히 전달되기 바란다.

### | 참고문헌 |

#### 1. 저서 및 논문

강혜영, 『부산지역 미술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고수익, 『표구미학개론』, 고륜, 2007.

김산호, 『한국 근현대 표구기술의 변천 과정』,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김한근, 『역사를 품은도시 중구이야기』,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박원순, 『우리가 잃어버린 고급 전통문화』, 『國史館論叢』 75, 1997.

백경와, 『표구업에 기반을 둔 지류문화재 수리장인의 출현 과정』, 안동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5.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부산근대지도모음집』, 효성정판인쇄, 2012.

朝鮮實業新聞社, 『朝鮮在住內地人 實業家人名辭典 第1編』, 朝鮮實業新聞社, 1913.

## 2. 인터뷰

고려당표구사 대표, 박용근.

보문당표구사 대표, 최현문.

